

‘마라라고 회동’ 북핵 빅딜 성사될까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 “북핵 인류의 문제”

시진핑에 고강도 대북 제재 압박

한국 ‘사드 보복’ 변수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의 6~7일(현지시간) ‘마라라고 미 플로리다주) 회동’에서 기로에 선 북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G2(미중)의 두 ‘스트롱맨’이 처음 만나는 회담으로, 최소한 향후 4년(트럼프 임기) 간 국제질서의 기본 틀을 짜는 자리다. 북한이 핵무기의 완전한 실전배치를 목전에 둔 시점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한 모종의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 장기화한 북핵의 교착 국면을 흔들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채 북한이 6차 핵실험 등을 통해 의심할 수 없는 ‘핵무장국’의 지위를 거머쥐는 것은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최우선 안보 현안으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 최고경영자(CEO) 대상 탄우를 미팅에 참석해 “시 주석과 나는 당연히 북한을 포함해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은 정말 인류의 문제”라고 말했다.

북핵 위협 자체 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잠재적 정적(김정은) 제거에 화학무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자국 주재 외국인을 외교 협상 과정에서 ‘인질’로 잡는 등의 양태가 트럼프에게 북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심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해온 트럼프는 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 위 부여, 환율 조작국 지정 등 무역과 관련한 ‘당근과 채찍’을 활용,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수준의 고강도 제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 또는 2000년대 중반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 사례처럼 중국 금융기관에 타격을 주는 형태의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트럼프의 예봉을 일단 피한 뒤 비핵화 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병행하는 ‘대화론’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이 ‘제재’와 ‘대화’ 사이에서 입장 차이를 확인하더라도 ‘당장은 북한을 비핵화 회담으로 복귀시킬 고강도 압박에 나서야 할 때’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에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반면 ‘거래의 달인’ 트럼프가 무역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대신 북핵 문제에서는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식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한다. 때문에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공표될 미중의 입장이 실제 두 정상의 내밀한 합의와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 통들은 보고 있다. 회담 이후 미중이 실제로 취할 후속조치를 봐야 한다는 얘기도.

북핵과 결부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므로써 중국의 대한국 보복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도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어느 정도 중시하는지에 대해 다른 동맹국들에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이 문제 역시 미중 거래의 큰 보자기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사안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 상원의원 26명이 미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4일 중국의 대(對)한국 ‘사드 보복’ 철회 요구 등을 담은 연명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낸 것은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중국, 북·중 관계 챙기기 잇단 행보

북한 주재 대사, 평양 조·중 우호탑 헌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제6차 핵실험 우려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제재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리진권(李進權) 주북한 중국대사가 양국 간 혈맹을 상징하는 조·중 우호탑에 헌화해 주목된다.

5일 주북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리 대사는 청명제(淸明節·청명절)인 4일 평양에 있는 우호탑을 찾았다.

리 대사는 대사관 전체 직원과 가족, 북한의 화교 대표, 북한 주재 중국 기업인 및 언론 대표, 중국인 유학생 등 200여명을 데리고 이번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화한 꽃바구니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천추에 길이 빛나라’라고 적혀 있었으며 리 대사는 우호탑에 천천히 올라가 헌화한 꽃바구니를 정리하고 묵념했다.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리진권 대사가 대표들과 함께 우호탑 탐사에 들어가 중국 인민지원군의 명단을 둘러본 뒤 함미원조(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도와준다)의 주제 벽화를 관람했고 북·중간 전통 우호에 대한 북한 해설

자의 설명을 들으며 영광스러운 역사를 새겼다고 전했다.

앞서 리 대사는 지난 3일 평양 중공군 열사능원을 참배한 중공군 후순 16명을 초청, “미국에 저항해 북한을 지원했던 위대한 역사적 의의 및 중국 지원군과 북한 국민이 함께 처절하게 싸웠던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리 대사는 그 자리에서 “역사는 잊을 수 없으며 중국과 북한의 양국 정부와 인민도 지원군 전사의 탁월한 공훈을 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국방무관은 4일 평양 교외의 형제산에 있는 중공군 열사능원을 찾아가 성묘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다가 숨진 중국군이 묻힌 중공군 열사능원은 양국 혈맹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곳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에는 중국 고위층의 방문이 뜸했음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곳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이 냉각된 북·중 관계와 교류를 확대하려는 정치적인 제스처일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연합뉴스

“G2 우리 놓고 흥정 말라”...北, 미사일 발사

북한이 5일 오전 동해 상으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은 오는 6~7일 개최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무력시위’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미사일 문제를 두고 벌이는 ‘담판’을 하루 앞두고 ‘우리를 놓고 흥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도발에 나섰다

한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42분경 함경남도 신포 일대 지상에서 동

북한 동해상 탄도미사일 1발 발사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초기 분석 결과 이는 북한이 2월 12일 발사에 성공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미국명 KN-15) 계열로 추정된다고 한미 군 당국은 밝혔다. ‘북극성 2형’은 고체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은 데다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돼 탐지가 어렵다.

북한이 이처럼 위협적인 전략무기인 북극성 2형을 발사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강화 논의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는 분

석이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 등 다른 현안을 지렛대 시 주석에게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하며 ‘거래’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고성 무력 도발을 통해 ‘핵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에는 말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 오직 군사적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며 대미 ‘강 대 강’ 대응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다.

연합뉴스



중국인 팬 많은 버핏 중코카콜라 모델 됐다

미국 억만장자 투자가 워런 버핏(86)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중국에서 체리 맛 코카콜라 체리코크의 모델로 나서게 됐다.

코카콜라는 중국에서 출시하는 체리코크 캔 음료 특별 한정판 전면에 버핏의 얼굴 그림을 넣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카콜라는 지난달 10일 중국 시장에서 처음 체리코크를 선보였으며 제품 홍보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버핏의 얼굴이 들어간 제품은 한정 수량만 판매될 예정이다.

버핏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체리코크 매니아다. 중국에서 버핏의 인지도가 높다는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합뉴스



일본 온 스페인 국왕 5일 일본을 방문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왼쪽)이 도쿄 왕궁의 환영 행사에서 아키히토 일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총검술 배우는 일본 중학생...아베 군국주의 절정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 군인들이 배웠던 총검술을 중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제국주의 시대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교단 군국주의화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확정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체육의 ‘무도’ 중 선택과목으로 총검술을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012년 무도를 중학생이 꼭 배워야 할 과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일선 중학교에서는 학교의 방

침에 따라 여러 무도 과목 중 총검술을 선택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패전한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총검술 등 무도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보고 금지했다.

연합뉴스

상가 건물 매매 경매 / 투자 전문 | 010-7384-7800 010-6670-98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용2천)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전면으로 전방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갈끔)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아이트윈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방 최고) 광양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평택 전문

토지 (경매, 건설개발) 하실분 모집

① 전원주택토지 투자자 모집

송탄 터미널 5분 총 1,700평 전방 최고 / 전원주택 강력 추천!!

→(시 세) - 평당 200만 (선착순) → 평당 150만

② 개발 부지(271평) 코너자리

송탄역 5분 - 송탄 터미널 1분 위치최고 / 분양 최고

▶ 매가 33억 개발시 순수익 50억!!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를권추천

- 동구 금남로 5가 (8층중 4층 상가) 토 53평, 건 340평 롯데백화점 옆 광주 가장 큰광수, 가장 저렴한 가격 ▶감정가8억 → 최저가 1억8천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료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감정가 45억 → 최저가 31억
- 광산구 하남 (7층중 4층 상가) 토 36평, 건 95평 하남 홈플러스 인근, 6차선 대로면 접 ▶감정가 7억7천 → 최저가 3억4천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86평, 건 340평 1층상가 2층~5층 총 33개 월수익 1,000만이상 / 문선역 1분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
-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1층) 토 21평, 건 34평 상무역 1분, 상무지구 최고 중심가 ▶감정가 16억 → 최저가 7억2천